문화재 보수 예산도 없는 '문화수도'



한 시민이 11일 광주시 북구 무등산국립공원 자락에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는 옛 성벽 '무진고성'의 동문 입구인 '무진고성 동문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 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산 자락 통일신라 성터 '무진고성 동문지' 붕괴 4개월째 방치 지반 침하에 모서리 파손…예산확보 늦어져 8월 중순 복구 계획

무등산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광주시 기념물 제 14호 '무진고성 동문지'가 지난 봄 붕괴됐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나 자치구에 문화재 파손이나 붕괴에 대비 한 긴급복구 예산이 없기 때문으로, 문화수도 광주 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화재 전문가는 지난 1997년 복원이 완료된 무 진고성지의 잘못된 축조 기법과 향후 관리 부실을 붕괴 원인으로 지적했다.

11일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옛 성 벽인 '무진고성 동문지'의 남쪽 모서리 일부(가로 5 m, 세로 3m, 높이 5m)가 무너져 내렸다. 광주시 등 은 지반침하와 우수 유입 등으로 인해 붕괴된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무진고성 동문지는 안에 자갈과 흙을 넣고 겉면에 자연석을 성벽처럼 쌓아올린 방법으로 축조됐다.

전문가들은 전체의 절반 가량을 해체하고 다시 쌓아야 할 정도로 복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기 도 했지만 광주시와 북구가 지난 4개월 동안 취한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에 설치한 안전 테이프가 전부다.

특히 무진고성 동문지가 위치한 지역은 무등산 잣고개를 넘어 청풍쉼터로 이어지는 무등산 옛길 1 구간 사이로, 등산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광주시와 북구는 지난 6월에야 추경에서 30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복구를 준비 중이다. 이달 중 보수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나 보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진고성 동문지 보수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갑작스런 문화재 파손이나 훼손에 대비한 문화재 긴급복구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중요한 문화재는 파손이 발 견되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보수작업에 들 어가는 게 맞다"며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당장 예 산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다가 뒤 늦게 보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무진고성지는 통일신라 후기에 사용된 성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이다. 1988년과 1989년 두 차 례의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 후기에 처음 쌓았으 며 부분적으로 다시 고쳐 고려시대까지 사용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1989년부터 1997년 까지 9년 동안 모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진고

도올 김용옥 '전남 독서토론열차' 동승 안한다

불참 의사…장만채 교육감 참여키로

전남 청소년들과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타기로 했던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일정을 취소했다. 그의 책 '중국일기'를 읽으며 민족정신과 꿈, 희망을 주제로 토론하길 손꼽아 기다려온 학생들의 실 망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교 육청은 아직 학생들에게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올 김용옥 선 생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획된 '시 베리아 횡단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에 불참 의 사를 밝혀왔다.

전남교육청은 "대한민국 역사, 분단, 통일에 대한 비전을 주제로 한 영국 출판사의 책 출간 의 뢰가 들어오면서 방대한 작업량, 집필에 따른 부 담감 등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도올 선 생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독서토론 열차학교는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 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위해 진행중인 전남도교육청 핵심 사업으 로, 이번 대장정에는 전남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0명(남 52명·여 68명), 교사 20명 등 160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15박 16일 동안 중국 대련~연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 등을 지나는 열 차 안에서 도올 선생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할 예 정이었다.

도올 선생의 불참으로 프로그램 수정도 불기 피해졌다. 도올 선생의 '우리 민족 청년들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강연도 취소됐 고 우수리스크, 이르쿠츠크 등에서 나누기로 했 던 '이상설, 안중근 선생 등 독립투사들의 인간적 고뇌, 우리 민족의 시원, 한국 역사 속의 러시아' 등을 주제로 한 토론도 물거품이 됐다.

전남교육청은 도올 선생 대신,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지 전체 3.5km 구간 중 270m를 복원하면서 무진 고성 동문지를 함께 복원했다. 하지만 복원이후 성 벽 일부가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피해가 잇따라 논

란이 되기도 했다.

전남대 임영진 교수는 "무진고성은 광주시의 정 밀 복원이 이뤄진 상태에서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 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옛 날 축조 기법을 그대로 써도 무너질 수 있는데 재현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게 원인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공사 청탁' 뇌물 받은 前부안군수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 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김호 수(73) 전 전북 부안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업자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받은 부 안군 6급 공무원 김모(56)씨와 브로커(74)를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건설 브로커로부터 "특정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2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35억원 규모로 진행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 러났다. 브로커는 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이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조 사됐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금연 하나 했을 뿐인데 당신은 건강해지고, 가족은 더 행복해집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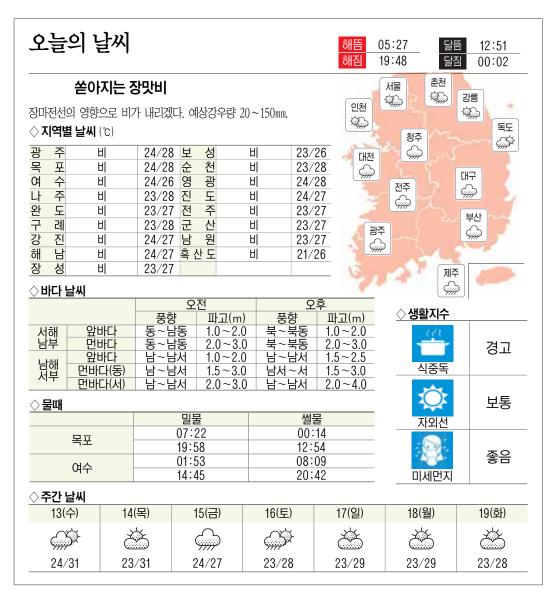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여름철 기온 상승 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 수 온도가 18도 이상 오르는 5월 첫 환자가 나오고 8~9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발생 환자는 모두 33명으로, 주로 해산물 섭취, 어망작업, 상처에 수족관수 접촉 등으로 발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 패류는 깨끗이 씻어 영하 5도 이하 저온 보관해야 한다. 날생선 섭취를 삼가는 것은 물론 도마, 칼 등 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윤현석기자chadol@

전국 일본뇌염 경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채집한 모기를 분석한 결과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이면서, 전체의 50% 이상인 곳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서 모기를 채집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매개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일본뇌염 경보를 전 국에 발령한다.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바이러스 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때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금연치료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 8주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제공 ●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80%지원,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일부지원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과 건강관련 물품 지급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